

# (주)애즈랜드 창업 10년 제2의 도약 펼친다



## 파주에 신사옥 마련 ... 기능성 인쇄생산 시설 갖춰

인쇄·디자인 전문기업인 (주)애즈랜드(대표이사 최현수)가 좀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보장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첫 출발로 2007년 2월16일 파주 신 사옥으로 이전한다.

(주)애즈랜드는 인쇄업계 최초로 벤처기업에 선정되었으며, ISO 9001을 획득 하였고, 2006년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우량기술기업에 선정된 중견 기업이다. 사내의 디자인 관련 전문가팀을 운영중이며, 전문가팀을 통해 인쇄관련 다수의 특허, 실용신안을 출원하였고(특허 1건, 실용신안4건, 디자인등록 16건 등), 국가에서 주관한 다수의 사업을 성공리에 마쳤다. 디자인에 대한 남다른 열정의 결과로, 점착메모지의 자체 디자인을 통한 상품개발을 통해서 3M(포스트잇) 과의 경쟁을 위한 준비도 이미 마친 상태이다. 현재는 산학연을 통한 장기 프로젝트를 국내외 모 대학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영업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

한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주)애즈랜드는 그 동안 이전을 위한 약 8개월간의 대장정을 85% 가량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입주 준비에 들어갔다.

최현수 대표이사는 “인쇄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해온 그 동안의 성과를 집대성한, 그야말로 회사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일이며, 회사의 존립목적인 고객 만족과 서비스 혁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최고의 노력을 다했다” 라고 말했다.

m<sup>2</sup>당 10톤을 견디는 구조로 연 건평 1천평으로 지어진 최첨단 인쇄 기능성 공장인 파주 신 사옥은 생산시설은 물론, 사무실, 접수실, 출고실, 고객공간, 직원 휴게실 등을 한 건물에 배치함으로써 기존의 분산된 서울 작업장에 비해 업무효율과 고객만족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게차가 옥상까지 이어지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종이

와 인쇄물을 적재하는 적재공간을 과시한다.

회사 측은 기존의 온라인 접수 고객의 경우 회사의 이전과 전혀 관계없이, 주문과 접수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며, 오히려 현재의 접수 시스템을 보완한 찾아가는 영업 시스템이 도입되고 고객과 직원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거래처 전담제를 실시하며, 실시간 주문정보 제공 등 고기능성 생산기반을 완벽하게 갖춰 고객의 입장에서 더욱 편리한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한마디로 “출고와 납기는 현재보다 훨씬 나아진다는 것을 보장 합니다. 파주와 서울 사이에 3.5톤 차량과 1톤 차량을 매일 매시간 운행할 것입니다. 생산 시스템은 주문에 대해 당일 야간에 100%생산을 완료함으로써 고객은 다음날 오전9~12시 사이에 별도의 확인 없이도 주문한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택배 주문 고객들도 오전에 모든 주문에 대해 배송을 완료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훨씬 빨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각 움직이던 것을 인쇄기부터 코팅, 재단, 중철, 제책, 접지기 등 모든 생산설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이를 통해 생산시간 단축은 물론, 직접화에 따른 생산성 및 작업 효율성증대, 의사소통의 증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포스트잇(접착메모지), UV인쇄, 특수인쇄 등의 인쇄물 또한 더불어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현재 적용되어 있는 CIP3/4, CMS시스템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며 새로이 JDF시스템을 도입 적용할 것이다.

이로써 애즈랜드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존의 One-Stop Service가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현재 주문시스템인 인트라넷을 대폭 개편하여 웹기반의 주문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고, 고객은 웹상에서 단지 클릭만으로 자신의 주문을 완료할 수 있는 고객 친화형(Customer-Friendly)으로 진화할 예정이다.

(주)애즈랜드는 2006년이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해라고 밝혔다. 회사의 가장 큰 역사라 할 파주 이전을 결정 하



한 주문에 대한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을 온라인, 모바일, PDA 등을 통해 제공하여, 고객은 자신의 주문이 현재 어떠한 생산과정에 있는지를 원하는 즉시(real-time) 알 수 있습니다. 막연히 원거리로 이전하기 때문에 출고와 납기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우에 불과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파주 신 사옥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 일체를 설계부터 최첨단의 온라인시스템으로 설계하였다는 점이다. 사무실, 접수실, 생산시설을 하나의 건물에서 동일한 시스템으로 연결함으로써 접수에서 생산, 출고까지 유기적으로 연결 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중철, 제책, 접지기의 도입으로 중철 인쇄물, 월간지 등의 생산시설이 구축됐다. 또한 개별의 생산설비도 각

였고, Barcode 시스템 적용, ERP 시스템 도입, 신형 인쇄기 도입, 신형 CTP 도입, 생산시점관리 도입, 접수 인트라넷 개편, 온라인 마케팅 강화 등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이러한 변화들이 파주이전으로 회사의 효율성과 맞물려 구체적인 산출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2010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준비의 원년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 입니다. 임직원과 고객에게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알리고 이를 위해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주)애즈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현수 사장의 파주사옥 이전과 신년 각오다. 김정상 기자